1931년 華僑排斥事件과 조선 민족주의운동*

朴 正 鉉 (高麗大)

Ⅰ. 서 론
Ⅱ. 화교배척사건의 배경
Ⅲ. 화교배척사건의 양상과 일본의 대응
Ⅳ. 화교배척사건의 주도세력
Ⅴ. 결 론

Ⅰ. 서 론

근대 이후 동아시아 사회의 이주는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근대 이후 중국의 영역이 사방으로 확대되면서 만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지리적인 인접성으로 조선에도 중국의 이주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이후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과 조선에 이주한 화교 문제는 한국·일본·중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했고, 그 대응도 각기 달랐다. 조선 화교 문제와 만주 조선인 문제가 극단적으로 표면화 된 것이 만보산 사건과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조선의 화교배척사건[1]이었다.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2-A00001).

1) 화교배척에 대한 명칭은 화교배척, 화교배척사건, 화교배척폭동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31년 화교배척을 통칭할 때는 화교배척사건으로, 구체

일본 식민지 시대 조선 화교 문제는 만보산 사건 이후 화교배척사건과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2]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일제강점기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고, 한국과 중국의 재외 이주민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만보산 사건에 이은 화교배척사건은 만주사변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한·중·일 모두에 각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원인은 재만 조선인 문제, 만주 권익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 조선 화교와 조선인 사이의 민족갈등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원인과 배경이 비교적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만보산에서 중국인이 조선인을 박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에서 화교를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박영석의 『萬寶山事件硏究』가 가장 자세하고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 뒤 김희용, 최병도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박영석의 연구는 만보산 사건으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조선 국내에서 화교에 대한 적대적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 사건은 곧 이어진 일본의 만주 침략과 결부되어 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진 사건

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화교배척폭동이라고 기술한다.

2) 만보산 사건과 화교배척운동을 다룬 연구로는 박영석, 『萬寶山事件硏究: 日帝大陸侵略政策의 一環으로서의』(亞細亞出版社, 1985); 叢成義, 『萬寶山事件之硏究』(臺灣政治硏究所碩士學位論文, 1983); 사보혜, 『만보산사건과 인천 화교배척사건 연구: 재만한인과 재한화교의 관계사적 입장에서』(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희용, 「日帝强占期 韓國人의 華僑排斥」(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태웅,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 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의 내면세계」(『역사교육』 112, 2009); 강진아,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 -在韓中國領事館과 朝鮮總督府 간 교섭을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120, 2012.9) 등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최병도(「만보산 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 『한국사연구』 156, 2012)의 논문은 만보산 사건의 양상을 인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재판결과를 통해 일제의 대응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만보산 사건에 관한 연구사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만보산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평양사건에 대해서는 손승회(「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 『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와 이상경(「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 『만주연구』 11, 2011)의 연구가 있다.

이라고 보았다. 중국 정부나 신문에서도 일본 사주설을 주장을 함으로써 일본 사주설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지만, 김희용, 김태웅, 최병도 등의 최근 연구는 다른 관점에서 화교배척사건을 분석했다. 이들은 조선 화교문제를 재만 조선인 문제와 연결시키던 것에서 벗어나 조선에 대거 들어온 중국인 쿨리들이 한정된 조선의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조선인 노동자들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쿨리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적대감이 화교배척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만보산 사건과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라는 분명한 배경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인천, 평양, 군산 등 몇몇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사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3]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중국사 연구자들이 진행해왔다.[4]

화교배척사건을 독특한 시각에서 정리한 연구는 민두기의 연구이다. 민두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기사의 차이를 민족주의 진영의 입장 차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5] 박영석이 만보산 사건과 화교배척사건의 실체에 접근한 연구라고 한다면, 이 연구는 화교배척사건의 복합적 성격을 들여다 본 연구로 의미가 있다.

만보산 사건은 이미 자료가 공개되어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할 여

---

3) 인천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사보혜·김영신,「일제시기 재한화교(1910-1931) -인천지역 화교를 중심으로-」(『인천학연구』 4, 2005)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평양의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연구는 손승회, 이상경의 연구가 있다. 군산의 화교배척에 대해서는 김태웅이 군산 화교를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다.

4) 만보산 사건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관해서는 손승회,「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産黨」(『東洋史學硏究』 83, 2003); 이재령,「南京國民政府時期 중국의 한국인식 -萬寶山事件에 관한 輿論動向을 중심으로-」(『中國史硏究』 31, 2004); 이재령,「南京國民政府時期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 (1929-1935)기사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15, 2003) 등이 있다.

5) 민두기,「滿洲에서의 萬寶山事件(1931)과 한국 언론의 대응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東洋史學硏究』 65, 1999).

지가 별로 없다. 하지만 만보산 사건으로 일어난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한으로 한국과 중국의 신문자료에 주로 의존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건의 개요도 신문자료와 중국의 일부 외교자료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자료는 일본 경찰의 검열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해 많은 제한이 있었다. 臺灣 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檔案館이 소장하고 있는 『駐朝鮮使館檔』은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6] 이 자료를 통해 당시 화교배척사건의 배경과 진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자료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주로 이용했지만 그 의미를 간과했던 신문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1931년 화교배척사건의 배경과 원인, 폭동과정, 주도세력, 화교배척사건의 성격을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Ⅱ. 1931년 화교배척사건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

1931년 화교배척사건에 대해 한국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만보산에서 중국 관헌의 조선인 박해에 대한 잘못된 오보에 흥분한 조선인이 중국인을 공격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변하지 않는 정설이었다. 둘째, 화교배척사건은 한국의 연구, 중국의 견해, 당시 체험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주로 조선 민족주의자들이 놀아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화교배척사건이 확대되고 만보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잘못된 유언비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선의 민족주의 진영 지도자, 재만 동포의 호소, 각계 인사들이 민중의 과도한 행동에 대해

6) 화교배척사건에 관한 자료는 『駐朝鮮使館檔』 1931年 「僑務」 4, 11, 12, 13; 1932年 「僑務」 4, 5; 1932年 「調査報告」 11, 12, 13, 15가 있다.

비판하면서 폭동이 줄어들었고, 중국인에 대한 사과와 평화적인 사태 수습에 노력하면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양 민족의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선의 민족주의 진영은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화교배척사건을 무식계급의 무지와 폭력이 불러온 결과라고 평가했다.[7] 하지만 화교배척사건을 일반 민중의 무지에 의한 감정 폭발로 몰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이 사건은 양 민족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평화적으로 수습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다.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경과에 대해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에는 조선 민족주의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다고 본다. 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1931년 화교배척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먼저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선 신문의 기사와 화교배척사건의 직접 도화선이 된 조선일보 호외에 대해 살펴보자. 만보산 사건 발생 이전 재만동포에 관한 기사는 조선일보가 55건(1931년 3월 1일-7월 2일, 같은 날짜 기사 포함), 동아일보가 27건(1931년 3월 1일-7월 4일)이었다. 이것은 특별히 많은 기사수가 아니었고, 내용은 재만 조선인의 지위와 처우문제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만보산 사건에 관한 기사는 1931년 6월 4일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는데, 각각 9건으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었다. 기사의 내용도 조선인 박해에 관한 것이었지만, 급박하거나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다. 만보산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경우 7월 4일까지 만보산 사건에 대해 보도했으나, 조선일보는 7월 2일 호외를 배포하고 4일부터 본격적으로 화교배척 폭동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

7) 『동아일보』 1931년 7월 13일.

만보산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 호외는 7월 2일과 3일 2차례 발간되었다. 현재 7월 2일자 호외는 남아 있는 것이 없고, 7월 3일자 호외만 남아 있다. 따라서 인천 화교배척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7월 2일자 호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영석은 7월 4일자 조선일보의 2면 앞 기사가 7월 2일자 호외이고, 뒷 기사가 7월 3일자 호외의 再錄이라고 보았다. 반면 민두기는 7월 3일자 2면 만보산 사건 기사가 7월 2일자 호외의 재록이고, 7월 4일자 기사는 7월 3일자 호외의 재록이라고 보았다.[8]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7월 3일자 호외를 보면, 7월 4일자 앞 기사는 7월 3일자 호외에 없는 기사내용이었다. 따라서 7월 4일자 앞 기사가 7월 2일자 호외의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2면 하단에 2일 이래 두 차례 호외를 발행했다는 社告를 보면 박영석의 서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내용도 만보산 사건에 대한 시위대의 진술과 일치한다.[9] 호외 기사의 내용은 어느 것을 신뢰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다. 호외라는 형식이 주는 선동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수백 장의 호외로 인천 시내 전체를 폭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만보산에서 중국 관헌이 조선인을 살상했다는 소식을 전한 호외로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일보에서 호외를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조선일보 인천지국장 崔晋夏가 320매(또는 350매)를 7월 2일 저녁과 7월 3일 새벽에 인천에서 배포한 뒤,[10] 7월 3일 새

8) 민두기, 앞의 논문, p.154.

9) 화교배척폭동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가운데 의견서에는 "昭和 6년 7월 2일 조선일보 호외에 의하여 중국관민 800명의 습격, 다수동포 위급, 長春 三姓堡문제 중대화, 일본 주둔군 출동, 통신 불통, 傳信鳩 날려 활약, 일본관헌 급거 출동이라는 제목에서 다수의 조선인 동포가 北滿洲 長春 三姓堡 萬寶山에서 중국관민 800명과 충돌하여 다수의 살상자가 나고, 그리고 200명의 조선인 동포가 위급한 상태"라고 보도했다고 나온다(『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6(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경찰신문조서: 의견서」,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0)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6(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예심조서: 崔晋夏 신문조서(1931.7.27)」(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하지만 최진

벽 2시부터 화교에 대한 산발적인 공격이 시작되었다.[11]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2일 저녁과 3일 새벽에 호외가 배포됨과 동시에 화교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리 계획된 시위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와 동시에 재만동포에 대한 옹호기사와 화교배척이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화교배척사건의 조직성과 계획성이다. 이 사건은 결코 우발적이고 충동에 의해 확대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집회 준비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집회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학생운동과 관련한 민중대회를 일으키기 위해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한 사항을 보면 1) 13일 오후 2시를 기해 광주학생사건 진상발표 대연설회를 府內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개최한다. 2) 연설회 개최 수 시간 전 자동차 기타로 삐라 약 2만 매를 살포하여 격앙된 민심을 유도한다. 3) 연사 권유는 조병옥이 담당한다. 4) 청중에 대한 유도는 이원혁이 담당한다. 5) 가두연설은 즉각 경찰로부터 금지 해산될 것이므로 그 즉시 군중을 선동하여 시위운동으로 옮겨간다. 6)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세 한글신문은 사건 직후 2회에 걸쳐 호외를 발간한다. 7) 신간회 지회에 대해서는 본부와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지령한다[12]는 등 집회와 시위는 선전과 선동의 아주 세밀한 사항까지 준비했다.

화교배척폭동도 각지에서 이러한 준비를 거쳐 일어났다는 것이 당시 정황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당시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루머가 오전에 퍼지고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는 이미 시

하는 1932년 예심법원 공판에서 인천에 350명 정도 독자가 있고, 그 정도의 호외를 배포했다고 진술했다(『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7(중국인피격사건신문조서·공판조서), 중국인습격사건(1), 「예심법원: 공판조서(1932. 3. 2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1) 「中國駐朝鮮總領事張維城呈外交部文及紀錄(1931年 7月 22日)」 (王霖·高淑英 主編, 『萬寶山事件』, 吉林人民出版社, 1991), p.196.

12) 이균영, 『신간회연구』, p.209. 姜在彦 編, 『抗日光州學生事件資料』 (朝鮮總督府 警務局), p.336.

위를 선동하고 예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총영사 張維城은 인천의 화교배척 폭동 움직임에 대해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영사관에 보낸 공문에 치밀하게 계획된 시위(well planed riot)라고 표현하여 이 시위를 명백히 계획된 시위로 규정했다.[13]

인천 화교폭동으로 재판을 받았던 당시 조선일보 인천지국장 崔晋夏의 조서를 보면 조직적 선전과 선동 상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최진하는 7월 4일 오후 8시 반경부터 군중에 가담했고, 시위 중 만난 학생 崔三成, 金炯源, 白昌鉉, 崔東珪, 金容白, 金孟烈 등에게 이번 소요 원인은 경찰당국이 너무 중국인을 보호하고, 조선인에게 압박을 가한 것이 원인이므로 중국인의 집에 투석하지 말고 경찰관에게 투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평양에서 200명, 京城에서 수명의 노동자가 응원하러 왔으므로 열심히 하라. 오늘 밤부터 다음날까지 계속하여 폭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군중 및 학생들을 선동했다.[14]

즉 최진하는 호외를 배포하여 군중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고, 학생들에게 시위를 계속할 것을 독려했으며, 경성과 평양의 노동자, 청년단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최진하가 부인했고, 일본 경찰이 과도하게 혐의를 씌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증인 최동규의 증언이나 당시 정황상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 또한 화교 공격에 직접 가담하여 체포된 인물 가운데 田明俊은 인천 신간지회 간부이며 좌익계열이었던 權忠一과 관련이 있었다.[15] 권충일, 이창식 등 15-16명은 인천 화교배척폭동과 관련하여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16]

---

13)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4, pp.2-9. 중문으로는 배화폭동으로 표현했고 우발적인 시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영문으로만 계획된 시위로 표현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이것으로만 중국 측에서 이 시위를 계획된 시위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6(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의견서」, 「증인 崔東珪 신문조서」,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6(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소행조서」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6) 『동아일보』 1931년 7월 23일.

평남 평원군 漢川의 화교배척폭동은 조직적인 시위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평양 부근 한천에서 일어난 화교배척사건은 무정부주의 단체인 관서 흑우회 간부로 평원군 조선일보 한천지국장이었던 全昌涉(조선일보에는 全昌燮으로 기술) 외 수명이 공모하여 한천에 있는 무정부주의 단체인 자유노동조합과 한천 청년회원을 선동하여 7월 사건에 폭동을 일으켰다.[17] 이 사건만은 지식계급에 속하는 사람과 주의자가 연루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전창섭은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한천 대중의 자발적 시위였다고 주장하고[18] 자신은 오히려 폭동을 제지한 사람이라고 공술했다. 그러나 그가 흑우회 간부이고 한천 노동조합장으로 선전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가택을 수사한 결과 선전문과 증거품이 발견되어 7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19]

전창섭은 조선일보 지국장의 신분이었다. 신문사 지국장은 지역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경성에 정보를 제공했다. 1927년과 마찬가지로 1931년 화교배척사건에서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사 지국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남 안주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장래 진행할 구체안을 토의키 위해 4일 오후 4시에 당지 매일신보 지국에서 임시 의장 이선욱의 사회로 장춘현 삼성보 동포구축 문제에 대해 시위 행렬에 관한 건 등 구체안을 결의했다. 이어 5일 밤 안주에서는 읍내 중국상점을 습격하여 유리창과 간판 등을 파괴했으나 경계하는 경관의 제지로 즉시 해산되었다.[20]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시 각 사회단체 간부들이 화교배척폭동의 조직과 선동에 상당히 연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 간부들은 직접적인 파괴와 화교 구타에 이들은 거의 가담하지 않았다. 화교배척폭동은 집회를 통해 재만동포의 실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대중들을 선동하여 시위로 이끄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사회

17) 『동아일보』 1932년 4월 13일.
18) 『조선일보』 1931년 7월 14일
19) 『조선일보』 1931년 8월 4일, 10월 28일.
20) 『조선일보』 1931년 7월 7일, 8일.

단체 간부들은 학생, 청년, 노동자를 자극해서 동원하고 이들이 화교를 공격하도록 선동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화교배척폭동은 흥분한 대중의 폭력행위로 나타났다.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통적인 현상은 오전이나 오후 청년단체나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재만동포의 상황을 보고하고 저녁때 시위가 시작되어 화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사전에 어린이를 동원하여 돌팔매를 하고 이어서 청년들이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이것은 화교배척사건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평양에서는 어린이 10여 명이 중국인 음식점 東昇樓에 투석한 뒤, 청년들이 중국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21] 어린이들의 공격이 신호가 되는 경우는 1927년 화교배척사건 당시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인다.

중국인에 대한 공격은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오전에 집회를 통해 대중을 자극하고 오후에 시위를 조직하여 화교상점과 중국인을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단체와 학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집회를 열고 대중을 자극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경성의 조선청년총동맹에서는 재만동포 危害 문제에 대하여 중국 국민정부와 일본 외무대신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고, 총동맹의 세포단체인 각 郡府 청년동맹에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으키도록 지령을 발송했다.[22]

청년단체와 학생이 주도해서 일으킨 화교배척폭동을 보면, 강원도 영월에서는 인천에서 폭동이 일어난 뒤, 좌경 청년들이 도처에서 선전활동을 하여 화교를 적대시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이에 해당 지역 경찰서에서 주야로 진압하고 화교를 보호했다.[23] 원주에서는 7월 20일 조선 청년당이 화교를 적대시 하여 무력으로 화교를 쫓아냈다.[24] 조치

---

21) 吳基永, 「平壤暴動事件回顧, 在滿同胞問題 특집」 (『동광』 제25호, 1931.9), p.10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2) 『조선일보』 1931년 7월 5일.
23)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131.
24)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134.

원에서는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났으나 경찰에서 조치하여 청년 20여 명을 체포했다.[25] 춘천의 경우 7월 6일 농업학교 학생들이 주도하여 중국인 떡집과 잡화점을 습격했다. 같은 날 양주에서는 회천면 덕정시장에서 중국인 요리점을 공격하고, 중국인을 구타해서 덕정주재소 순경이 봉양리 청년 15명을 주동자로 검거했다. 사리원에서는 5일 저녁 10시 경 청년 노동자 수백여 명이 곤봉, 돌멩이를 들고 중국인이 경영하는 요리점 東陞樓를 포위하고 전선을 절단하여 전화를 불통케 한 뒤 습격하여 가구를 파괴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3-4곳의 요리집과 10여 곳의 포목상, 야채상까지 습격했다. 이리의 地境에서도 5일 밤 9시 경 청년 수십 명이 중국인 빵집을 습격했다.[26]

宣川에서는 4일 저녁 10시 조선학생이 거리에서 만보산 사건에 대한 선전 연설을 했는데, 이로 인해 폭도 200여명이 운집하여 화교 상점을 습격했다. 5일 새벽과 밤에도 연이어 화교를 공격했다. 6일 소문이 더욱 험악해져 중국인 200여명이 기차로 안동으로 잠시 피난했다.[27] 이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폭동을 축소 보도하고 피해 사실도 상당히 다르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5일 밤 중국인 상점을 수회 습격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나 손해는 없었는데 만일을 염려하는 중국인 약 170명이 6일 밤까지 전부 안동현으로 피난가고 시내는 평온한 상태라고[28] 보도했다. 당시 조선 신문의 화교배척폭동에 대한 보도는 화교배척 시위나 중국 공격 사실은 보도했지만, 사상자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사전 검열로 축소 보도했다.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 寧邊에서는 7일 오후 8시 50분 농업학교 학생 50명이 시민 200여명을 이끌고 화교와 華農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성공하지 못했다.[29] 화교배척사건은 이와

25)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97.
26) 『조선일보』 1931년 7월 8일.
27) 『駐朝鮮史館檔案』 1931年, 「僑務」 13, p.81.
28) 『조선일보』 1931년 7월 10일.
29) 『駐朝鮮史館檔案』 1931年, 「僑務」 13, pp.84-85.

같이 계획적으로 시작되었고, 청년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지의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재만동포 옹호 운동을 전개하면서 집회를 통해 군중을 모으고, 이들이 화교를 공격하는 폭동으로 발전했다.

Ⅲ. 화교배척사건의 양상과 일본의 대응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폭동은 하루도 안 지나서 조선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는 호외의 효과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였다. 3일, 4일에 이어 5일에는 평양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이 폭동은 133명의 사망자와 74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평양 폭동 이후 조선 민족주의 진영의 자제 요청과 일본 경찰의 적극 개입으로 폭동은 진정되기 시작했으나, 7일까지 크고 작은 유혈폭동이 계속되었다. 화교배척폭동은 5일 가장 격렬했고, 기간은 3일 정도였지만, 중국인 142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중상을 입어 큰 피해를 남겼다(아래 표 참조).[30]

<표> 조선총영사관 조사 조선慘案 사상자 통계(사망자는 9월 상순 조사)

사망부분			
사망지점	관할영사관	사망자수	비고
진남포와 그 부근	진남포 부영사관		
평양	진남포 부영사관	133	
중지도	신의주 영사관	2	
부산	부산 영사관		
원산	원산 부영사관	1	
함경남도 川內里	원산 부영사관	2	
함경남도 안변군	원산 부영사관	1	

30) 화교배척사건의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중국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중국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자료도 오류가 많아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가장 늦게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했다.

강원도 沛川	원산 부영사관	1			
인천	인천 辦事處	2			
총 계		142			사망자수는 9월 상순 조사에 의거
중상부분					
부상지점	관할영사관	부상자수			비고
		남	여	합계	
진남포	진남포 부영사관	1		1	
평양	진남포 부영사관	62	12	74	
경성	조선총영사관	6		6	
인천	인천판사처	2		2	
원산	원산 부영사관	3		3	
강원도 長箭	원산 부영사관	16		16	
강원도 통천군	원산 부영사관	1		1	
강원도 沙川津里	원산 부영사관	1		1	
강원도 南崖里	원산 부영사관	2		2	
강원도 패천	원산 부영사관	2		2	
함경남도 안변군	신의주 영사관	1		1	
함경남도 宣川郡 三山洞	신의주 영사관	2		2	
함경남도 선천군 大岩洞	신의주 영사관	1		1	
함경남도 용천군 남시	신의주 영사관	2		2	
함경남도 雲山北鎭 橋洞	신의주 영사관	2		2	
함경남도 昌城郡 大楡洞	신의주 영사관	2		2	
부산	부산 영사관	2		2	9월 상순 보고로 추가
총 계		108	12	120	9월 상순까지 사상자수 무증감

자료출처 :『駐朝鮮使館檔』1931년,「僑務」12, 111-112쪽.

2차례 화교배척사건에서 인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 때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교배척사건이 일어났다. 1931년에는 인천에서 최초로 폭동이 일어났다. 인천은 화교가 출입하는 중심항구였다. 조선에 온 화교들은 대부분 산동성 출신으로 인천으로 들어와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인천은 화교 집산의 중심지로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어 조선인과 화교의 충돌이 잦았다. 하지만 평양에서 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손승회가 추측했듯이 만주와 가까워 만주 한인과 관련이 긴밀했다는 평양의 지리적 특수성[31]

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진 것 같지는 않다. 재만동포 옹호운동이 평양에서 우연히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일본 경찰의 대응 미숙도 한 몫을 했다. 아울러 평양에서는 1927년 화교배척사건 때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성 등 다른 대도시처럼 중국인들이 미리 대비하거나 대피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그리고 평양에서 주로 피해를 본 중국인은 소규모 잡화상, 농민들로 이들은 교외에 산재해 있어 집중적인 보호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은 전북 삼례에서 시작해서 남부지방에서 확산되었다.[32] 그러나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인천에서 시작하여 경성을 거쳐 평양에서 격렬하게 일어났고, 원산, 신의주, 함경도 지역 등 주로 북부지방에서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일본 경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일본 경찰이 조기에 확산을 방지했다. 하지만 북부지방에서는 시위와 화교 공격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일본 경찰의 대응은 지체되었고 미숙했다. 일본 경찰이 사전에 준비하고 질서를 유지한 곳에서는 화교배척폭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사태가 소규모 충돌에 그쳤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이 격렬했던 경험이 있던 남쪽 지역은 대부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위가 일어나기 전, 초기에 진압하여 큰 충돌이 없었다. 대전 등 충남 지역은 폭동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일본 경찰이 질서를 유지했고, 중국상인도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여 대체로 평정을 유지했다.[33] 특히 충남 仙掌처럼 조선인과 화교가 친선의 정이 두터워 오히려 더 평온했던 경우도 있었다.[34] 전북 고창도 1927년에는 격렬한 폭동이 일어났는데, 1931년에는 경찰서장이 특

31) 손승회, 앞의 논문(2009), p.162.
32) 1927년 화교배척사건에 대해서는 박정현, 「1927년 재만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중국학보』 69, 2014) 참고.
33)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3, pp.17-20.
34)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3, p.40.

별히 보호하여 별 일이 없었다.[35] 북부 지방이지만 평북 厚昌의 경우 1,500여명의 화교가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려 실탄을 장전하고 화교를 보호하여 별 일이 없었다.[36] 경찰의 대응과 함께 지역 청년단체 등 사회단체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조선인의 화교에 대한 공격을 중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밀양에서는 청년동맹, 기타 사회단체와 중국인 대표가 양쪽 민족을 보호하는데 합의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 마산에서도 마산 노동연맹에서 朝中 간에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 방지책으로 위해 방지 연설회를 개최했다.[37]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중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인들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사주 의혹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에 대한 적대감을 높였다.[38]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과도한 유언비어와 헛소문으로 민중들을 자극해서 반일, 반한 감정을 고조시켜 자국의 민족주의를 고양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동삼성 당국에서 중국인이 생매장되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든지, 산 채로 물에 빠뜨려 죽였다든지 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조선 총영사관에 조회했는데,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행방이 밝혀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로금을 받기 위해 귀국한 화교들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39] 이러한 유언비어와 과장보고는 나중에 사실이 드러났지만, 조선과 중국에서 민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평양 화교배척폭동을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폭동의 자제를 호소했고, 각지에서 화교 희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40] 일본 경찰도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 헌병대까지 동원해서 폭동을 진압했다. 아울러 재만동포 옹호집회도 금지시켰고,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35)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114.
36)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137.
37) 『조선일보』 1931년 7월 10일.
38)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p.3-10, 14, 20.
39) 『駐朝鮮使館檔』 1932년, 「調査報告」 15.
40)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89, 92, 94.

미리 검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화교배척폭동은 점차 진정되었다. 몇몇 지방에서 작은 시위와 소동이 있었지만 일본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곧 해산되었다. 폭동이 진정되자 양 민족은 1927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관과 사주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조선 화교와 재만 조선인의 안전을 위해 서로 자제를 호소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여 화해하는 방향으로 수습했다.

화교배척폭동이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전국으로 확대되자 일본 경찰은 화교배척폭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7월 5일 이후 일본 경찰이 재만동포 옹호 집회를 금지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화교배척사건 뒤에 각지에서 검거 선풍이 일었던 것은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체포한 것이었다. 사건 직후부터 일본 경찰은 각 단체의 중요 인물을 체포했다. 이는 사전 단속을 위한 것도 있었고, 실제로 폭동에 관련된 인물들도 있었다.

경성 시내에서는 각 사회단체의 중요인물 60여명을 시내 각 경찰서에 갑자기 검속했는데, 노총의 김해룡, 농민총동맹의 서병하, 靑總의 윤영철, 정백, 근우회의 정칠성, 김약천 등이 검거되었다. 이는 사회단체의 지도자들이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41] 인천에서는 3일 이후 형세가 여전히 불안해서 7월 6일 50여 명을 검거하고, 청년동맹 등을 엄중 단속하고, 청년동맹원 이창식, 노동조합 간부 박삼봉 외 수명을 검거했다.[42]

6일 오후 6시 함흥에서는 사회단체원 金兌鎬, 韓鴻霆, 金峻植, 韓溥亨 4명이 화교배척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되었다.[43] 부산에서는 각 사회단체 연합회 주최로 9일 오후 8시부터 부산 청년동맹관에서 만보산 사건 비판연설회를 열기 위해 각지에 포스터를 붙이고 개최를 준비하던 중 준비위원인 박제, 김성태, 조유식, 정차호, 김두업 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선일보는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연설회를 개최

41) 『동아일보』 1931년 7월 7일, 『조선일보』 1931년 7월 6일.
42) 『조선일보』 1931년 7월 6일.
43) 『조선일보』 1931년 7월 10일.

하려는 것은 모종의 계획을 일으키지 않나 하여 검거 취조 중이라고 보도했는데,[44] 부산에서도 화교배척폭동이 일어나 중국인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5] 충남 홍성에서는 7월 4일 오후 9시 반 홍성시민협회, 홍성상무사, 無空會, 의법청년회, 형평사 홍성지부 등의 각 단체의 대표인물이 형평지부에 모여 재만동포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려고 당지 경찰에게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금지시키고, 경과보고도 제한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홍성 경찰은 공업전수학교 생도 50여 명을 소환했고, 朴源植, 趙奇衡, 尹瑛, 趙大奉, 崔德吉 등을 검속했다.[46]

평양과 인천, 신의주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주로 농민과 노동자들이었다. 시내의 화교들은 이미 화교배척의 움직임을 감지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 이것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준비된 폭동이었다. 반일운동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했던 일본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도 사전에 검속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근거가 되었다. 화교배척사건에 대해 일본 경찰은 반일운동이 아니라 치안유지 입장에서 접근했다. 따라서 치안유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이 만주 문제에 있어 일본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 민족의 갈등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치안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제지했다. 따라서 일본은 초기에 화교배척에 대해 방임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적극 대처했다.

평양의 조난 중국인을 구제하고자 조직된 평양사회단체 협의회에서는 평양 폭동사건에 일본당국이 너무나 진압에 무능력했음을 질책하고자 오윤선, 조만식 등을 대표로 파견했다. 이들은 7월 11일 오후 3시 소노다 히로시(園田寬) 평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경관이 목도하는 앞

44) 『조선일보』 1931년 7월 10일.
45) 『駐朝鮮使館檔』 1931년, 「僑務」 12, pp.111-112.
46) 『조선일보』 1931년 7월 7일, 10일.

에서 살상을 감행하고, 무장 경관이 시내 전체를 경계한 둘째 날에도 중국인 가옥을 다시 습격하고, 파괴와 방화가 있었던 것은 경찰의 무능이나 무성의라고 비난했다. 이에 소노다는 사건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해명했다.[47]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는 만주에서 중국인이 조선인을 괴롭힌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고 회고했다. 외사과장 호즈미 신로쿠로(穗積眞六郎)도 일본 사주설을 부인하면서 일본이 당시 상황에서 화교배척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48]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본이 화교배척사건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로 인식하고 방관했던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사주하고 배후조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Ⅳ. 화교배척사건의 주도세력

화교배척사건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중국인 공격이었다면, 누가 이 사건을 주도했고, 왜 화교를 공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3장의 주요내용이다. 화교배척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 민족주의 운동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26년 말부터 자치운동이 정치세력화하자 안재홍은 이를 관제적 타협운동으로 비판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결합하여 신간회 운동을 전개했다.[49] 신간회 본부는 원래 조선일보계를 위시한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장악[50]

47) 『동아일보』 1931년 7월 13일.

48) 朝鮮近代史料硏究會, 「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2) -朝鮮統治における「在滿朝鮮人」問題-」(『東洋文化硏究』 3, 2001), p.203, 210.

49) 김인식, 「안재홍의 신간회운동」(『愛山學報』 33, 2007), p.91.

50) 이균영, 앞의 책, p.213. 원래 논문에는 좌파민족주의(자)로 되어 있으나 윤상원의 논문(「만보산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 『한국사연구』 156)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표현했다. 논자에 따라 서로 달리 호칭하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간회가 조직된 이후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은 침체되었다. 이에 복대표대회 이후 신임 중앙간부들은 이전의 침체된 활동에서 실천적 활동으로 나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1930년 민중대회는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되었다.[51] 하지만 민중대회가 일제의 사전 검속으로 실패로 돌아간 뒤, 신간회는 자치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온건화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했다.[52] 이에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신간회 해소 주장이 대두되었고, 신간회는 1931년 5월 해소되었다. 비타협 민족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에 반대했는데, 가장 체계적인 반해소론을 펼친 사람은 안재홍이었다. 해소론에 대해 안재홍은 "조선과 같이 근대 여러 세기에 민족의식이 침체 萎靡했던 인민은 그 자신이 민족적 정조의식에 침윤, 앙양되는 민족 소부르주아적 혹은 자본주의적 의식인 관념운동의 과정조차 아직도 지속할 것을 역사적 과제로 가지고 있다. 하물며 조선의 운동은 양대 진영의 병렬협동이 가장 동지적 지속을 하여야 할 정세 아래 있고, 둘이서 서로 대립 배격할 정세를 가지지 않았다"[53]고 하고, 지속적으로 '조선 단일 대표단체'의 존속을 주장했다. 해소 반대론자들도 과거 신간회가 실천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54]

1931년 5월 신간회가 해소되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공동투쟁의 장이 사라져, 두 진영의 운동방식은 간극이 더욱 커져 갔다. 민족주의 진영은 동아일보계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점점 개량의 길로 나아갔다. 반면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노조운동을 통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1930년대 들어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표면단체이던 각종 사상단체와 대중단체의 영향력

여 본고에서는 자치주의적 민족주의(자)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통일해서 서술했다.

51) 이균영, 앞의 책, p.216.

52) 위의 책, p.468.

53) 안재홍, 「해소파에게 與함」(『批判』, 1931. 7·8合號), p.32.

54) 이균영, 앞의 책, p.525.

은 점점 약화되었다.[55] 그래서 안재홍을 비롯한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은 실천적 투쟁을 통해 조선 단일 대표단체의 결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에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사례는 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이들은 새롭게 조선 단일 대표단체의 결성을 위한 촉매가 필요했고, 다시 한번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이용했다.

신간회의 활동과 재만동포 옹호운동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 하지만 재만동포 옹호운동은 신간회 지회의 설립과 대중운동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매개고리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화교배척사건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재만동포 옹호와 이를 명분으로 한 화교배척은 일본의 감시와 단속을 피할 수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이용해서 만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 조선의 지배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용인해주었다. 1931년 5월 신간회 해소가 결정되고,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이 침체하자 비타협 민족주의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그러한 가운데 만주 동포에 대한 옹호운동은 이미 4년 전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었다.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1927년 재만동포 옹호동맹과 같은 조직적 활동을 기대하고, 1931년에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벌였다. 1931년 만보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선일보 호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과장된 정보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대로 보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를 통해 민중을 시위운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했다. 당시 자치운동을 중시하던 동아일보 진영은 1927년과는 달리 재만동포 옹호운동에 대해 처음부터 냉정을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56]

---

55) 윤상원, 앞의 논문, p.276.

56) 『동아일보』 1931년 7월 5일-9일. 민두기가 화교배척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의 차이가 민족주의 운동노선의 차이라고 본 것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었다(민두기, 앞의 논문, pp.169-171).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1927년 화교배척사건의 데자뷰였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이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통해 신간회 각 지부의 결성을 활성화하고 민족주의 진영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면,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신간회 해소 이후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이 재만동포에 대한 전면적인 구축이라는 잘못된 소문으로 시작했듯이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만보산에서 조선인이 중국 관헌에게 살상 당했다는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작되었다. 안재홍 등 비타협 민족주의 인사가 주도권을 행사했던 조선일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재만동포에 대한 기사는 일본의 검열을 피하면서 조선 민중들에게 민족주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펼칠 수 있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세력을 공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이를 통해 좌우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재만동포 옹호운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화교배척폭동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적극 이용했던 것은 분명했다.

당시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신간회 해소 이후 조선 단일 대표단체의 설립이 절실했고, 이를 위해 조직적인 결집이 필요했다. 인천에서 화교배척이 폭동으로 발전한 뒤에도 조선일보의 보도는 과격한 시위에 반대하지만 재만동포 옹호운동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57] 화교배척이 평양의 화교배척폭동으로 확대되고 과도한 살상이 드러나면서 과격한 시위에 대한 중단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만동포 옹호의 정당성은 여전히 강조했다.[58]

조선총독부는 재만동포 옹호운동에 대해 적극 저지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금지하고 단속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57) 『조선일보』 1931년 7월 4일, 사설.
58) 『조선일보』 1931년 7월 4일, 5, 6일, 사설.

간접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일본이 만보산 사건 이후 화교배척폭동을 사주하고 배후에서 역할 했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민족진영에서 민족주의운동을 고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화교배척사건은 다양한 그룹의 민족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화교배척은 일제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고, 조선총독부로서도 만주지역에서 조선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은 방지하여 사건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묶어두려 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이용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화교배척사건을 활용하여 1931년 7월 8일 경성 시내 고등학교에서 격문을 살포했다. 7월 8일 휘문고보를 비롯해서 경성여고보, 중앙기독교 청년학교, 경성실업전수학교 등에 화교배척폭동을 비판하고 과격한 문구(아마도 반일 주장이었을 것이다)를 나열한 격문이 뿌려졌다. 이러한 격문은 경성 시내 각 사회운동 단체와 지방의 주요단체까지 배포되어 일본당국을 긴장시켰다. 7월 9일 아침에도 제2공립 고등보통학교 교실 책상 속에 조선인과 화교 사이의 충돌을 반대하고 항일 투쟁을 주장하는 격문 150여 장이 배포되었다.[59]

앞에 언급한 권충일이나 전창섭 등은 좌익계열로 알려져 있었다. 화교배척사건을 통해 사회주의 계열을 포함한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 여지가 넓어졌다. 일본에서는 경성과 평양의 조선인이 화교배척폭동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60] 신한민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폭동이 일어난 뒤, 평양 부근 촌락에서 두어 차례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의 다수가 노동자였다. 또한 일본 당국은 화교배척폭동의 주모자 가운데 한인 공산당원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폭동을 빙자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61]고 보았

59) 『동아일보』 1931년 7월 9일, 10일.
60) 『신한민보』 1931년 7월 9일.
61) 『신한민보』 1931년 7월 16일.

다.

화교배척사건은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에서 대중운동을 고양시켜 조선 단일 대표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일으킨 성격이 짙다. 화교배척사건을 통해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민족주의 진영에 다양한 활동공간이 열렸으나 조선 단일 대표단체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유혈사태의 발생으로 일본 경찰이 화교배척폭동을 진압하고 주요단체 인사를 체포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곧이어 발생한 만주사변으로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다.

V. 결 론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복합적인 원인과 배경의 결과였다. 화교배척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건이 일어난 조선의 내부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의 신간회 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간회의 결성과 해소과정에서 화교배척사건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둘째, 화교배척사건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문제이지만, 일본과 중국도 중요한 당사자였다. 일본과 중국은 만주 권익의 확대를 둘러싸고 재만 조선인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그리고 일부 재만 조선인들은 일본의 만주 진출 전략에 이용당하면서 중국의 박해를 자초했다. 중국은 재만 조선인들을 일본의 만주 침략 앞잡이로 인식했고, 이들에 대한 박해는 상대적으로 일본인에 대한 박해보다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을 집중적으로 박해했다. 이는 조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었고, 조선에 있는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셋째, 중국인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탄압은 조선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으로 비화했다. 일본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선에서 화교배척사건이 발생했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해해야 이 사건의 배경과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교배척사건은 조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대중운동의 출로였고, 중국에서는 반일운동의 매개수단이었으며, 일본에서는 만주 이권을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었다.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시작되었고, 청년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에서 처음 시작된 폭동은 하루도 안 지나서 조선 전체로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각지 사회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들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전개하면서 집회를 통해 군중을 모으고, 이들이 화교를 공격하는 폭동으로 발전했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과 달리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인천에서 시작하여 경성을 평양, 원산, 신의주, 함경도 지역 등 주로 북부지방에서 확산되었다. 이는 일본 경찰의 대응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에서는 일본 경찰이 조기에 확산을 방지했지만 북부지방에서는 시위와 화교 공격의 징후가 있었음에도 일본 경찰의 대응은 지체되었고 미숙했다. 일본 경찰이 사전에 준비하고 질서를 유지한 곳에서는 화교배척폭동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더라도 소규모 충돌에 그쳤다. 화교배척폭동이 조직적인 양상을 보이고 전국으로 확대되자 일본 경찰은 화교배척폭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만동포 옹호 집회를 금지시키고,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일본이 화교배척사건을 조선인과 중국인의 충돌로 인식하고 방관했던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사주하고 배후조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화교배척사건을 무식계급의 무지와 폭력이 불러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논문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화교배척사건을 일반 민중의 무지에 의한 감정 폭발로 몰고 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 사건은 분명 한국 민족주의 진영의 사전 계획에 따라 일어났고, 일본이 이를 방관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연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조선 민족주의운동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신간회 해소 이후 조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실천활동을 통해 민족주의 운동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자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신간회운동과 화교배척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이것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7년 화교배척사건이 재만동포 옹호운동을 통해 신간회 각 지부의 결성을 활성화하고 민족주의 진영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면, 1931년 화교배척사건은 신간회 해소 이후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좌우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었다. 화교배척사건은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에서 대중운동을 고양시켜 조선 단일 대표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일으킨 성격이 짙다. 화교배척사건을 통해 대중운동이 고양되고, 민족주의 진영에 다양한 활동공간이 열렸으나 조선 단일 대표단체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화교배척사건이 조선 민중의 우발적인 감정으로 폭발한 사건이라는 기존의 정설과 중국인 노동자가 조선 노동시장에 진출한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대신 화교배척사건은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 발생했고, 확대되었다는 점을 밝혔으나, 직접적인 근거는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근거가 주를 이룬다.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직접적인 근거를 찾는 것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자료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화교배척사건에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의 조직적 개입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臺灣中央硏究院 近代史硏究所 所藏, 『駐韓使館檔案』, 「調査報告」 1932年 11, 12, 13, 15, 「僑務」 1931年 4, 11, 12, 13, 1932년 4, 5
2. 『동아일보』 1931년
3. 『조선일보』 1931년
4. 『신한민보』 1931년
5. 姜在彦 編, 『抗日光州學生事件資料』, 朝鮮總督府 警務局, 연도미상
6. 안재홍, 「해소파에게 與함」, 『批判』, 1931. 7·8合號
7. 吳基永, 「平壤暴動事件回顧, 在滿同胞問題 특집」 (『동광』 제25호, 1931. 9;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 王霖·高淑英 主編, 『萬寶山事件』, 吉林人民出版社, 1991
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6(中國人襲擊事件 裁判記錄), 「의견서」, 「신문조서」, 「소행조서」(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 김경일,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2. 馬仲可, 『山東華僑硏究』, 신성출판사, 2005
3. 박영석, 『萬寶山事件硏究: 日帝大陸侵略政策의 一環으로서의』 (亞細亞出版社, 1985)
4. 송병기, 『近代韓中關係史硏究』 (檀國大出版部, 1985)
5.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4)
6. 전해종, 『韓中關係史硏究』 (일조각, 1970)

1. 김희용, 『日本 强占期 韓國人의 華僑排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사보혜, 『만보산사건과 인천 화교배척사건 연구: 재만한인과 재한화교의 관계사적 입장에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 叢成義, 『萬寶山事件之硏究』 (臺灣政治硏究所碩士學位論文, 1983)
4. 강진아, 「만주사변 전후 조선 화교문제의 양상 -在韓中國領事館과 朝鮮總督府 간 교섭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20, 2012.9)
5. 김영신, 「일제시기 재한화교(1910-1931) -인천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2005)
5. 김인식, 「안재홍의 신간회운동」 (『愛山學報』 33집, 2007)
6. 김태웅, 「1920·30년대 한국인 대중의 華僑 認識과 國內 民族主義 系列 知識人의 내면세계」 (『역사교육』 112, 2009.7)
7. 민두기, 「滿洲에서의 萬寶山事件(1931)과 한국 언론의 대응 -상이한 민족주의적 시각」 (『東洋史學硏究』 65, 1999)
8. 박정현, 「1927년 재만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중국학보』 제69집, 2014)
9. 박영석, 「日本帝國主義下 在滿韓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諸問題 -1931년 滿州

事變 이전을 중심으로-」(『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 1995)
10. 손승회,「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産黨」(『東洋史學硏究』 83, 2003)
11. 손승회,「특집 :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동아시아; 소설 『만보산(萬寶山)』과 만보산사건」(『大東文化硏究』 54, 2006)
12. 손승회,「1931년 植民地朝鮮의 排華暴動과 華僑」(『중국근현대사연구』 41, 2009)
13. 吳世昌,「在滿韓人의 社會的 實態(1910-1930) -중국의 對韓人정책을 중심으로-」(『白山學報』 9, 1970)
14. 윤상원,「만보산사건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중국 인식」(『한국사연구』 156)
15. 이상경,「1931년의 '배화(排華) 사건'과 민족주의 담론」(『만주연구』 11, 2011)
16. 이재령,「南京國民政府時期 한국언론의 중국인식 -『동아일보』(1929-1935)기사를 중심으로-」(『중국학논총』 15, 2003)
17. 이재령,「南京國民政府時期 중국의 한국인식 -萬寶山事件에 관한 輿論動向을 중심으로-」(『中國史硏究』 31, 2004)
18. 朝鮮近代史料硏究會,「未公開資料 朝鮮總督府關係者 錄音記錄(2) -朝鮮統治における「在滿朝鮮人」問題-」(『東洋文化硏究』 3, 2001)
19. 최병도,「만보산 사건 직후 화교배척사건에 대한 일제의 대응」(『한국사연구』 156, 2012)

(Abstract)

Overseas-Chinese Exclusion and Chosun Nationalism Movement of 1931

Park, Jung Hhyun

This paper analyzed the background, the cause, the violence process, and the lead influence of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that took place in 1931. Unlike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exclusion in 1931 started spontaneously, it was thoroughly planned and run by organizations made up of young adults and students. Moreover, a movement defending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was in commenced and developed into violent riot, which involved rallies gathering crowd and attacking the overseas-Chinese. After in its inception in Incheon, the movement expanded all across the country.

Dong-Ah Ilbo reported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as the result brought on by ignorance and violence of the ignorant class. But is that really the case? This paper begs to differ. It would be irresponsible to categorize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as an emotional explosion of the ignorant. This event was begun by premeditation within the nationalism camp, and Japan played a role in wrongful dismissal of it. The protagonist of this event is clearly Chosun's nationalists.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of 1931 comprises speculations

and effort towards revitalizing Chosun's nationalist movement. Following the settlement of Shinganhoe, there was a need in the nationalism camp to enhance the nationalist movement through practice. When the Wanbao Mountain Incident broke out, uncompromising nationalism camp tried actively to use the opportunity. To this day, the two events Shinganhoe and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were considered independent events. Nevertheless,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y have an intimate correlation. In the development of Shinganhoe,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of 1927 played a significant role.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of 1931 was the déjà vu of the exclusion in 1927. While the exclusion in 1927 played a role of revitalizing organization of Shinganhoe's branches through movement of defending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and uniting nationalism's capacity, the exclusion of 1931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xpanding the camp of uncompromising nationalism. Just as the exclusion in 1927 started based on false rumor that it is overall establishment of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the exclusion in 1931 began based on false information that a Chosun person was murdered by a Chinese official at Wanbao Mountain. The organizations that circulated this information were Chosun Daily News and Dong-Ah Daily News, Chosun Daily News being more active of the two in circulating it.

The articles on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was the ideal opportunity to avoid censorship of Japan while inspiring nationalism among the Chosun people. Not only that, enabled to defend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it was an opportunity to openly expand the influence upon nationalism; moreover,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unite the left and right camps.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is

strongly believed to have occurred to establish are presentative organization of unified Chosun by enhancing a mass movement of uncompromising nationalism camp. Mass movements were enhanced through the overseas-Chinese exclusion and various activity spaces were opened; however, it did not go as far as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unified Chosun.

주제어: 화교, 재만동포옹호동맹, 화교배척사건, 신간회, 만보산사건
關鍵詞: 華僑, 在滿同胞擁護同盟, 華僑排斥事件, 新幹會, 萬寶山事件
Keywords: an overseas Chinese, Protection Alliance for Korean Residents in Manchuria, anti-Chinese riots, Singanhoi, Wanbao Mountain Incident

(원고접수: 2014년 5월 14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통보: 2014년 6월 16일, 수정 원고 접수: 6월 24일, 게재 확정: 6월 25일)